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새로운 역사 이곳에서...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인 여수세계박람회가 11일 개막식을 갖고, 93일간의 대항연에 들어간다. 10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먹바지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박람회장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미리보는 박람회 개막식·개장식

오늘 저녁 K팝 스타 총출동 축하공연 레이저·해상분수·불꽃 '빅오쇼' 환상

“첨단 기술과 감동이 함께하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여수세계 박람회(8월 12일까지) 개막식은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화려한 축하공연 등으로 펼쳐진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일 “박람회 개장을 축하하는 개막식을 11일 오후 7시에 열고, 12일 개장식을 통해 93일간 대항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전야제 개막식에서는 여수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형상화한 대규모 해상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스카이다워에 설치된 대형 파이프로오간이 뱃고동 소리로 개막을 알리고 각종 퍼레이드와 오케스트라, 전통공연, K-POP 공연이 이어진다. 개막식 공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해양무대인 ‘이어도’에서 펼쳐진다. 식전행사인 ‘즐거운 바다’에서는 30분간 해양음악제가 열린다. 윈드오케스트라 60명이 ‘선언과 바다의 노래’ ‘봄의 왈츠’ ‘바다고향곡’ 등을 연주한다.

또 음악제가 열리는 동안 오동도 인근 바다에서는 범선과 요트, 한국의 전통 배 등 다양한 선박이 퍼레이드를 펼친다.

공식행사인 ‘함께하는 바다’에서는 명창 안숙선과 무용단 40명이 ‘비나리’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11m 높이의 목각인형 마리온네트 ‘연안이’와 바다생물을 형상화한 캐리커처들이 퍼레이드를 펼친 후에는 아이유가 엑스포 로고송을 부른다. 또 조수미와 합창단 30명이 이번 박람회 해상소 주제곡인 ‘꽃피는 바다’를

부여 예정이다. 오후 8시부터는 2NE1, 빅뱅 등 K-POP 스타들의 공연이 30분 동안 여수 밤 하늘을 수 놓는다.

이날 개막식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빅오(Big-O)쇼다. 워터스크린 디오(The-O)를 활용한 빅오쇼는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영상을 물 위에 투사한 레이저쇼와 해상분수쇼, 불꽃쇼가 함께 어우러진다. 바다를 배경으로 물과 불, 조명이 빛내내는 빅오쇼는 이번 박람회 최고 볼거리 중 하나다.

조직위 관계자는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이색적으로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며, 해상쇼와 빅오쇼 등 세계인을 사로잡을 대형 공연이 결집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막식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주관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된다. /오광록기자 kroh@

여수에 뜬 지구촌 정·재계 ‘별’ 2400명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과 개장식이 열리는 11일과 12일, 여수 밤하늘에 각각의 정·재계 별들이 뜬다.

조직위는 10일 “11일 열리는 개막식(전야제)에는 정치계, 재계 총수 등 국내외 주요인사 2400여명이 참석하고, 12일 개장식에도 국내외 귀빈들이 대거 박람회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연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 등 정당대표와 3부 요인과 국회의원, 정부 장관·차관, 외국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등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타 후말라 대통령, 남태평양의 섬나라 카리바시공화국의 아노테 통 대통령, 인도양 연안의 아프리카 소국 세이셸공화국의 제임스 미셀 대통령, 덴마크 프레데릭 크리스찬 왕세자, 카자흐스탄 카림 마시모프 총리가 참석한다.

외국정부 고위 인사로는 카타르의 압둘라 알 아타이 행정통제실장, 캄보디아의 참 프라시드 부총리, 투르크메니스탄의 노게르길리 아타갈리예프 섬유무역부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개막식에 초청됐다.

또 나딘 헤레디아 페루 대통령 부인과 엘리자베스 도날드슨 덴마크 왕세자비, 출태아비 보라 프라시드 캄

보디아 부총리 부인이 남편과 함께 동행한다.

국내의 기업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 개막식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와 최고위 경영진들도 대거 여수를 찾는다.

메인스폰서인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외선 부회장이 행사장을 찾았고, 삼성그룹에서는 유럽 시장총인 이진희 회장을 대신해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막식에 참석한다.

SK그룹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구분무 LG그룹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허창수 GS 그룹 회장과 손정식 CJ그룹 회장도 개막식을 찾는다. /오광록기자 kroh@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엑스포 대로’ 명명

여수세계박람회 가는 길인 여수~순천(국도 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이름이 ‘엑스포 대로’로 지어졌다.

전남도는 10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 구간 5개 노선의 도로명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박람회 개

최지의 상징성과 역사성 등을 감안해 도로 이름을 이렇게 명명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대로’는 총연장 33.7km의 4차선 도로로 여수 돌산을 우두리에서 시작, 박람회장을 경유해 순천 해룡면, 목포~광양 간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이 밖에 여수~순천·광양시에 걸쳐 있는 울촌 제1 일반산업단지 내 4개 노선 도로명은 각각 울촌산단1로, 울촌산단2로, 울촌산단3로, 울촌산단5로 명명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람회 제대로 즐기려면

사전예약 전시관 확인해 티켓번호 문자로 받아라 돗자리·모자·간식 싸들고 최대한 빨리 도착하라

이번 박람회 전시시설은 크게 4개의 특화시설인 빅오,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스카이다워, 아쿠아리움과 73개의 참여전시관(주최국전시관·참여전시관 등), 3개 체험시설(에너지파크·원앙어업체험장·연안어업체험장)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주제관·한국관 등 주요 전시관 8개 관은 하루에 1인당 2개씩 예약을 통해 입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람 동선을 잘 짜야 한다.

◇예약할 하면 입장 빨라요=개막전 1~3차 예행연습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장으로 이동하고, 전시관에 입장하는 시간이 길게는 4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시관을 얼마나 빨리 예약하느냐가 이번 박람회의 관건이 됐다. 먼저, 관람 날짜를 정한 뒤 입장권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 인터파크 등에 예약하면 배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인터파크 콜센터(1544-1555)에 전화해서 티켓번호를 요청하는 게 요령이다.

이렇게 하면, 본인 확인 후 문자로 발송해주는 티켓 번호로 입장권 예약 후 2~3일 만에 원하는 날에 전시관을 예약할 수 있다. 조직위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한 인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전시관 예약이 가능할지를 먼저 확인하고 관람 날짜를 여기에 맞춰 나중에 정하는 것도 요령이다.

◇관람객 물리는 시간은 피하세요=조직위에 따르면 예행연습을 통해 드러난 관람객의 동선은, 아침 일찍 입장한 관람객은 오후 3시~6시 사이에 대부분 박람회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오후에 입장한 관람객들은 대부분 저녁 늦게까지 관람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시관 앞에서 마냥 줄을 설 수도 없게 됐다.

어차피 박람회는 발품을 팔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수고로움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최대한 박람회장에 일찍 도착해서 관람객이 물리는 시간을 피해 입장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 또 전시관은 가급적 오후에 입장할 수 있도록 예약하고 오전

에는 예약이 안 되는 전시관 순으로 먼저 관람하는 것도 요령이다.

박람회장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으면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박람회장 안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뒤 시간을 버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시관 예약이 여의치 않으면 박람회장 곳곳에 마련된 의자 등지에서 편하게 쉬다가 차라리 밤에 펼쳐지는 빅오(Big-O)쇼를 즐기는 편도 낫다.

◇돗자리·모자·간식은 필수=전시관 입장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돗자리는 꼭 챙겨야 한다. 일행이 있다면 순번을 정해 줄을 서고, 남은 사람들은 돗자리에서 쉬 수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장에 그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도 챙겨야 한다. 박람회장 곳곳에 식당과 매점이 잘 갖춰져 있지만 장시간 관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과 간식을 가져오는 것도 요령이다. 아이들은 분수와 바다에서 물놀이할 즐길 수도 있으니 수건과 같이 일할 옷도 넉넉하게 챙겨야 한다. /오광록기자 kroh@

오늘부터 박람회 기념우표 판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우표(사진)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박람회를 축하하기 위해 기념우표 4종을 발행, 1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해양한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관’, 세계 최초의 바다 위 전시관인 ‘주제관’, 박람회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빅오(Big-

O)’ 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재활용한 문화 공간 ‘스카이다워’를 소재로 했다.

4종의 우표는 5장씩 모은 ‘20장 전지’와 4종의 우표 각 2개와 스카이다워 2장을 더한 ‘10장 소형시트’로 구성, 판매한다. 특히 소형시트를 사면 봉투를 함께 제공해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직원채용공고

광주 양동 신협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구분	내용
①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내용
채용인원	• 여 0명
담당업무	• 신협업무전반
응시자격	•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당 조합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에 걸려서 자격이 없는 자 • 1985. 05. 31 이전 출생자(만 27세)
② 채용조건	• 계약기간 : 6개월 • 6개월 근무후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③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사진첨부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④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다수의 1차 합격자가 있을 경우 신협협동조합에 관련된 금융상식 필기시험 • 3차 : 면접 (서류전형 및 2차 합격자에 한함)
⑤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2년 5월 11일 ~ 5월 18일(금) 17:00까지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5-101 광주양동신협 총무과 • 접수방법 : 서류지참하여 본인 내사 접수 • 채용문의 : 062)366-0013 ~ 5
⑥ 기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 전형결과에 합격자에 한해서 통지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양동신협협동조합 이사장 최 영 도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 면 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 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